국내 첫 코로나백신, 경북 안동서 출하된다

24일 75만명분 공급

SK바이오 사이언스서 출하식
안동시, L하우스백신센터 지원
CCTV 11대 설치로 철저 보안

안동서 국내 최초 코로나 백신 공급 눈앞

오는 24일 코로나19 백신 75만 명분(150만 도즈)이 국내 최초로 공급된다. 이날 오전에는 SK바이오 사이언스 안동L하우스백신센터에서 백신 출하식이 열린다.

오는 19일에는 백신센터에서 출하된 백신을 배송할 차량과 이동 경로에 대해 방역당국과 함께 군·경찰 인력이 모여 경비·보안과 관련된 모의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추진하며 총 7900만명 분의 백신 계약을 완료했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은 SK바이오 사이언스 안동L하우스백신센터에서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24일 국내 최초로 공급되어 25일 전국으로 배송되고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L하우스백신센터의 안전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 주변으로 CCTV 11대를 설치하여 안동영상정보통합센터에서 실시간 관제하며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계기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안동시의 협업 사례가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2011년 초 SK케미칼은 안동시와 12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2월 6만3000㎡ 규모의 국내 최대 백신공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백신센터를 준공했다. 2018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공장을 증설하여 연 5억 도즈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며 백신산업의 기반을 다졌다.

이에 발맞춰 안동시는 2016년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을 유치하고 2019년 49만 6000㎡ 규모의 경북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기공, 2020년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건립하며 바이오·백신 산업 집적화에 집중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 L하우스를 통해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SK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메이커'를 도입해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정기적 지원을 독려해 왔다.

희망메이커는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지원하는 활동으로 L하우스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약정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정서적 성장을 돕는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시가 추진하는 안동형 일자리모델에 적극 협력해 국립안동대학교와 함께 안동형일자리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맞춤형 인재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백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안동대 생명백신공학과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종사할 지역 내 백신 산업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중이다. 이를 위해 재직자 강의, 현장실습, 채용연계형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metroseoul.co.kr

경북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 장애인에 전동휠체어 전달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는 2월 17일 'SRT 사랑나눔 기부좌석—장애인 이동복지 증진 사업'의 후원을 받아 지체장애인 한명이 선정되어 증정식을 했다.

㈜SR에서 운영하는 기부좌석 제도는 휠체어석 중 일부 좌석에 대하여 열차 출발 45분전까지 좌석이 판매되지 않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도 휠체어 좌석을 판매하며 수입의 일부를 기부제도다. 1년간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후원하여 지체장애인 이동복지 증진에 사용한다.

이번 휠체어 증정은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자립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전동휠체어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230개 시도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총 7명의 대상자가 선정됐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영암시장 모습

부산시, 해양레저 키운다
26개 과제에 193억 투입

관광 인프라 조성, 산업 육성 추진

부산시가 '2021년 부산 해양레저관광진흥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6대 전략과 각 전략에 맞춘 26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계획에는 사업비 19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추진할 주요 전략과 추진과제로는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3개 사업 70억원) ▲해양레저관광 산업 육성(4개 사업 53억원)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체험도시 조성(7개 사업 47억원) ▲크루즈·유람선 허브 구축(5개사업 13억원) ▲새로운 해양관광 즐길거리 발굴(5개 사업 9억원) ▲낙동강 수상레포츠 메카 조성(2개 사업 1억원) 등이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코로나 극복 이후를 대비해 ▲사계절 안전한 해수욕장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 ▲수륙양용 투어버스와 해상택시·버스의 본격 도입 ▲크루즈와 유람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체험 여건 조성 등으로 부산을 해양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들을 반영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있지만 부산시가 제1호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이 사업들과 연계해 부산시를 코로나 일상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첫 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목표

여수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2023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맺은 협약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유니세프와 여수시가 전략적 자문과 기술적 지원을 주고받게 됐다.

협약서에는 여수시와 유니세프가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리 실현과 증진을 위한 통합적 아동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유니세프는 여수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시는 올해 3월 '여수시 아동·청소년 현황조사 및 4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아동·청소년들의 실태 및 친화도를 조사해 연도별 세부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민토론회 개최 및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등으로 아동·청소년과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 전반에 고루 반영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아동·청소년 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 운영을 비롯해 권리지킴이, 권리 교육, 아이디어 공모전, 친화예산서 발간 등 우리 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친화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에 인증 신청을 할 예정이다. /여수(전남)=김용확 기자 jijacecom@

영암군, 자영업자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영암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난생활비 등 각종 지원에 이어 공유재산 임대료의 일부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감면의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 338건에 5706만 6000원을 감면한다.

또한,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해 처리할 예정이며 미납한 임대료는 감면분을 제외한 고지서를 재발급하여 발송할 계획이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김천시, 코로나 재난지원금 3.5억 투입

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집합금지 업소를 대상으로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우선, 법인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정부버팀목자금으로 지원받은 개인택시업계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설명절 전 지원된 정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에 더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승객감소 및 사납금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택시회사에도 택시운행대수당 5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4개 법인택시법인 131대와 운전기사 123명으로 총 1억 27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관내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각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는 도 보조사업으로 김천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시비 70% 부담금에 대해 예비비를 풀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천(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北이탈주민자녀에 장학금 6500만원
박계하 몽 에뚜와르 단청제빵소 대표

몽 에뚜와르 단청제빵소 박계하 대표는 18일 북한이탈주민자녀를 돕기위한 장학금 6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몽 에뚜와르 단청제빵소 박계하 대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성도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전달된 6500만원은 (재)광주한마음장학재단에 전달돼 북한이탈주민자녀의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계하 대표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교육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감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계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114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여 보다 활발하게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다.

몽 에뚜와르 박계하 대표(왼쪽), 광주복지모금회 이성도 사무처장.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

전남, 상품디자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매출 35% 증가

전라남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 '지역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지난해 온라인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5% 이상 증가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됐으며 품질은 우수하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상품디자인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2017년 ㈜장흥식품이 LA 상설판매장에 입점해 '햇콩마루 세트'를 판매한 결과 3만 달러 실적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땅끝 햇살찬 영농조합법인의 '아이스 고구마', 농업회사법인 무화담의 '청무화과잼'이 미국을 비롯 싱가폴·호주·필리핀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